



배포 일시	2022. 9. 16.(금)		
담당 부서	감사관실	책임자	과 장 이재평 (044-201-3110)
		담당자	사무관 민기숙 (044-201-3102)
	항공정책실 항공산업과	책임자	과 장 김영혜 (044-201-4219)
		담당자	사무관 강윤진 (044-201-4223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국토부, 경찰의 이스타항공 불입건 처분 유감 - 국민안전과 직결된 재무건전성 개선 엄격히 요구할 것

- 9월 16일(금)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의뢰 건에 대하여, 서울경찰청(청장 김광호)으로부터 불입건(혐의없음)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.
 - 국토교통부는 서울경찰청의 이번 처분에 유감을 표하며,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은 항공기 안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.
- 무엇보다도, 국토교통부는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 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.
 -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표자 변경이 아닌, 경영악화로 2020년 3월부터 장기간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사가 회생절차를 거친 후 신청한 변경면허입니다.
 - 따라서, 국토교통부는 제3자에 인수된 이스타항공이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.

- 또한 이스타항공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도,
 -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 측 경영진이 변경면허 발급과 조속한 운항 재개를 위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
-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,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 - 이후,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운항재개 허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입니다.
-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심사의 절차와 방식을 꼼꼼히 되짚어 보고,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